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0.13(금) ~ 2023.10.19(목)

제공일시 2023 10 2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0.13(금) ~ 2023.10.19(목)

제공일시 2023 10 2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COP28서 '화석연료 단계적 폐기 협정' 추진키로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16일(현지시간), 올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화석연료(fossil fuel)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등 약 10개국은 화석연료의 전면 폐기 등 강력한 협정을 원했으나, 불가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몰타, 폴란드 등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가미한 완화된 수위를 원한 것으로 알려짐
- 올해 COP2 최대 쟁점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기이지만, 화석연료의 주요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해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할 것으로 전망됨

(릴라이트 2023.10.17) 박피터슨 기자

2.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탄소배출권 거래 시작

-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가 11일(현지 시각)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작함
- 일본 경제산업상 니시무라 야스토시는 "일본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탄소 신용 시장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탄소배출권 거래제(GX-ETS) 참여 기업들은 도쿄증권거래소를 통해 J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게 됨
- J크레딧은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도입, 삼림관리 등 기업들의 탄소 감축과 흡수 활동을 일본 정부가 인증 후 발행해 주는 탄소배출권임
- NHK는 연간 50만 톤 이상, 약 10억엔(약 89억원) 규모의 배출권이 거래될 것이라고 추산함

(임팩트온 2023.10.13) 이재영 기자

3. 유럽은행감독청, ESG 반영한 자본규칙으로 개정 추진

-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신용기관과 투자 회사의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의 역할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고, 은행이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힘
- EBA는 은행과 국가 규제 기관에게 개정된 자본 요구사항 규정과 지침을 전달해, 향후 3년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함
- 여기에는 은행이 의무적으로 필라 1(Pillar 1)에 환경 위험을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포함됨
- EBA는 개정안에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 담보 가치를 재평가하고, 공개되어 있는 동안 가치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함
- 또한, 거래 장부 리스크 예산, 내부 거래 한도 및 신제품 개발에 환경 위험을 포함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밝힘
- 실사 요구 사항 및 부동산 담보 평가의 일부로 환경적, 사회적 요인을 포함하고, 기관은 E와 S 요인이 운영 위험 손실을 유발하는지 식별하도록 요구할 계획임

(임팩트온 2023.10.16) 유미지 기자

4. 세계은행, "기후대출 늘리기 위해 IMF SDR 사용 의향있다"

- 지난 10일(현지시각),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가 "기후 변화 및 기타 세계가 직면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대출을 늘리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자본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함
- 그러나 총재는 인터뷰에서 "IMF의 준비금을 활용하는 데 상당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이며, 은행의 대출 화력을 높일 다른 기회들도 존재한다"고 언급함

(임팩트온 2023.10.16) 최동훈 기자

1. 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非은행 금융사 보유 허용해야”

- 정부가 지주회사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의 개선을 촉구함
-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주회사 체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소유지배구조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 기업들만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기 치열한 기술경쟁 및 신산업 선점에 있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는 1999년 지주회사를 허용하면서 기업 부실위험 전이를 차단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일률규제 △과잉규제 △비지주회사와 차별 등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상의는 국내 대기업의 절반이 지주회사 체제인 점, 경쟁국과 달리 정부 보조금 지원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 우리 기업들이 `기업주도형 전략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함

(한스경제 2023.10.18) 권선형 기자

2. ESG 공시 의무화,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 확대…2026년 이후 도입

- 금융위원회가 국내 ESG 공시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공시 대상 기업을 대형 상장사부터 기업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함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개최된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의 중요성과 원칙에 대해 설명함
- 먼저, ESG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되, 국내 시장과 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기준으로 제정을 추진함. ESG 공시 대상기업은 준비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예정
- ESG 공시 도입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일정을 고려해 2026년 이후로 연기함.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임

(뉴데일리 2023.10.16) 원혜진 기자

(글로벌E 2023.10.16) 윤혜정 기자

(조세일보 2023.10.16) 이민재 기자

3.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내년 5월부터 적용

- 자산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들은 2024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 함
-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힘
-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올해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 등 그간 정부의 제도개선 사항 및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의 개정동향을 참조해 시장 참가자의 요구, 기업의 실무적인 개정 수요, 보고서 체계 개편 등을 반영함
- 우선,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 공시해야 함
- 이어,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하고,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공시하도록 함.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설명하도록 함
- 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보수결정과정과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 활용여부도 공시해야 함
-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2024년 5월말까지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 적용될 예정

(아주경제 2023.10.12) 홍승우 기자

1. 구글, 도로교통 온실가스 배출문제 해결 위한 Si기반 솔루션 출시

- 구글이 시를 활용, 전 세계 12개 도시의 교통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돕는 프로젝트 그린라이트 등 교통 및 에너지 배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제품 서비스를 발표함
- 그린라이트는 신호등으로 인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AI와 구글 지도 기반 주행 트렌드를 활용, 5분 안에 구현할 수 있는 신호등 계획 최적화 권고안을 제시
- 교통량 감지, 인접한 여러 교차로를 녹색등으로 바꿔줌으로써 교통 흐름을 개선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음
- 12개 도시 70개 교차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교차로 정차 횟수 최대 30%, 배출량 최대 10%까지 줄일 수 있을 것
- 또한 구글은 미국, 캐나다, 유럽 및 이집트에 이어 올해 인도 및 인도네시아의 구글 지도에 연비 효율적인 경로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힘

(ESG투데이, 2023.10.11) 수잔 라헤이 기자

2. 美·中 전기차 업계 '구조조정'..경쟁 과열 지나 '안정기' 돌입

-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둔화세로 접어들
- 12일 계면신문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기차 스타트업 웨이마모터스가 전날 상하이시 제3중급 인민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함
- 지난 6월에는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던 전기차 스타트업 바이톤이 현지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냄
- 이와 관련,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중국 전기차 시장이 향후 경제 전반에 걸친 디플레이션 압력과 자국 전기차 기업 간 경쟁 심화로, 구조적 변화를 겪을 수 있다고 전망

(서울파이낸스 2023.10.12) 문영재 기자

3. 엑손모빌, 80조원 규모 세일석유 시추기업 인수한다

- 글로벌 석유기업 엑손모빌이 석유 시추업체를 인수하며 화석연료 사업 비중을 늘림
- 이는 에너지 기업들이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망을 수정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
- 로이터는 11일(현지 시간), 엑손모빌이 석유 시추업체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사를 595억 달러 (약 79조 7300억)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함

(포춘코리아 2023.10.12) 육지훈 기자

4. 생물 다양성 보고서 내는 보험사...ESG 경영 확대

- 보험사가 직접 나서서 생물 다양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색 ESG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음
- AXA그룹은 2030년까지 개인용 자동차보험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20% 감축하고, 그룹 투자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을 50% 절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 AXA손해보험은 '2023 기후 및 생물 다양성 보고서(AXA Climate&Biodiversity Report)'를 발간함
- 한화손해보험은 올해 5월부터 환경부 승인 비영리 공익법인 E-순환거버넌스와 협약을 체결해 폐사무기기를 재활용하는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에 동참하고 있음
- DB손해보험은 2017년 환경부와 함께 세계 최초로 환경오염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인 '환경책임보험'을 개발했으며, 이 공로로 UNEP 연례회의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됨

(매일경제 2023.10.15) 유준호 기자

1. CF연합 "재생E, 원전 모두 활용해야 탄소중립 달성 가능"

- 1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이 회성 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은 CF연합의 목표로 '기술 중립적 온난화 대책의 국제 표준화'를 꼽음
- CF연합 창립총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UN총회 기조연설에서 CF연합 결성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
- CF연합은 민관이 CFE의 국제 확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한 CFE 포럼을 사단법인화한 조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한화솔루션,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14개 기업·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함
- 10월말까지 법인 설립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UAE(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CFE를 의제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본격 활동을 시작함

(머니투데이 2023.10.12) 최민경 기자

2. GS칼텍스-포스코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에 바이오원료 정제시설 짓는다...2,600억원 투자 2025년 가동 목표

- GS칼텍스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손잡고 인도네시아에 바이오원료 정제 시설 건설을 추진
- GS칼텍스는 12일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와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바이오원료 정제사업 합작투자 서명식을 진행함
- 양사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 합작법인을 통해 2,600억원을 투자, 바이오원료 정제시설을 건설할 계획
- 정제시설은 30만㎡ 규모의 부지에 2025년 2분기 상업 가동을 목표로 내년 초 착공되며, 연간 50만톤의 바이오원료 및 식용유지를 생산할 예정임. 정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원료를 회수하는 사업도 공동 추진함

(워킹투데이 2023.10.12) 김근영 기자

3. 친환경 사업전환 속도내는 SK이노, 이번엔 '바이오 항공유'

- SK이노베이션이 올해 초 중국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이어, 폐자원에서 바이오 항공유 원료를 추출하는 국내 업체에 지분을 투자함
-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이 폐자원 기반 원료업체 '대경오앤티' 지분 투자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힘
- 이번 투자는 바이오 물질 기반 지속 가능 항공유(SAF) 원료 사업을 위해서임
-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임

(비즈니스 2023.10.17) 김민성 기자

4. HD현대중공업, 이산화탄소 해저 저장플랫폼 개발 착수

- HD현대가 국내 최대 규모의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탄소 포집 및 저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탄소중립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음
- HD현대의 조선 부문 계열사 HD현대중공업은 최근 현대건설과 이산화탄소(CO2) 해저 지중저장 플랫폼 개발을 위한 사전 기본설계 수행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힘
- 이번 프로젝트에서 HD현대중공업은 해상 플랫폼의 설계를 담당하며, HD한국조선해양은 CO2 주입시스템을 개발함

(뉴스 2023.10.15) 안정섭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10.13(금) ~ 2023.10.19(목)

제공일시 2023.10.2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398.7675

미국과 다른 움직임...영국,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 간 협력 “담합 아니다”

- 영국 경쟁시장국(CMA)이 12일(현지시각) 녹색 협력 가이드라인(Green Agreements Guidance)을 발표함
- 2019년 ‘2050년 탄소제로’라는 기후 목표가 법제화된 이후로도 기존 경쟁법을 의식해 지속가능성 관련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꺼려온 기업들에게 청신호를 켜준 것
- 이번 지침은 경쟁업체 보다 먼저 공급망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더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선점자 불이익(first mover disadvantage, 높은 개발비용, 시장 개척 부담 등)’을 없애는 것이 목표임
- 일반적으로 경쟁업체 사이에 담합, 즉 경쟁을 제한하는 거래는 더 높은 품질, 더 낮은 가격 등 비경쟁으로 기업이 얻는 혜택을 고객 또한 공정하게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익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피해보다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 그러나 CMA는 이번 지침에서 특정 공익성 요건을 충족하는 친환경 지속가능성 협약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이로 인해 기후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 간 협약은 영국 소비자 전체를 위한 혜택이 더 크다고 판단, 규제 조치에서 보호될 예정임
- 예를 들어 주택 건설업체는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설치하기로 합의할 수 있음. 금융기관들은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자금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고, 패션업체는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는 원단은 납품 받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음
- 지침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기후 및 환경정책을 추구하는 기업을 지지하는 이니셔티브 가입이 가능해짐
- 약사(AXA) 등 글로벌 5대 보험사를 포함한 대형 보험사들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위협에 넷제로연합(NZIA)를 탈퇴한 바 있음
- 지침에 따르면, 주주들이 기업의 환경 정책을 지지하거나, 기업 변화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낮음
- 영국 상공회의소 정책 책임자 알렉스 베이치(Alex Veitch)는 이번 CMA 지침이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소식을 전한 FT(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6월 유럽위원회는 기업 간 친환경 협력에 대한 반독점 지침을 완화했지만, 대중에 기후 혜택을 제공하는 거래에 대한 면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미흡했다고 논평함

(인팩트는 2023.10.18) 이재영 기자